



# 빛의사람들

2018.6.

2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 02)921-5093 FAX : 02)921-7847 / E-Mail :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 www.catholic-correction.co.kr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 By Leonardo da Vinci, 1495~1497)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요한 6,55-56)





## 2018년도 1회차 '사랑의 인문학'

4월 9일(월)부터 4월 30일(월)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교정사목 센터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와 서울보호관찰소, 아시아교정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자기 결정과 선택능력 향상을 목표로, 영화치료, 글쓰기, 노동자의 권리, 레크리에이션, 수원 화성 견학 등 다양한 방법과 여러 전문가가 투입되어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랑의 인문학'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남부구치소 여사 세례식



4월 24일(화) 남부구치소 여사에서 2명의 자매가 세례를 받았다는 기쁨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세례식을 집전하신 이상원 사도요한 신부님께서서는 "세례는 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단지 말뿐인 사랑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다른 사람의 처지가 나의 처지라고 생각하며 사랑을 실천한다면 협조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분명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두 자매가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서품2년차 사제연수(교정사목 체험의 시간)

4월 25일(수) 파주 민족화해센터에서 서품 2년차 신부님들의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 사회사목국의 14개 위원회를 소개하는 시간에 사회교정사목위원회도 참석하여 체험 및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13명의 신부님께서 참여해주셨으며,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활동사진을 보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수용자, 출소자, 피해자, 봉사자와 후원회원들에 대하여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교구 교정사목에서 빌려주신 수용복을 직접 입어보면서 잠시이지만 수용자가 되어 갇힌 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것 중에 수용자의 편지와 해밀(범죄 피해자)가족의 편지를 번갈아 보시며 깊은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이 2년차 신부님들이 교정사목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동부구치소 여사 세례식

5월 3일(토) 이상원 사도요한 신부님께서 집전하신 미사에서 3명의 자매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불려준 축하의 노래 속에서 세례를 받은 자매들에게 신부님께서서는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도 그

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를 통해 주님의 딸로 다시 태어난 자매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사랑과 영혼

이상원 사도요한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신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후원회원님과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영화 장르 중에 ‘멜로’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멜로는 흔히 부드럽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멜로 영화는 연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합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멜로 영화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선남선녀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멜로 영화의 특징 중 하나는 슬픈 사랑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 주인공 중 한 명은 꼭 불치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슬픈 것은 주인공이 죽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 현세에서의 못다 이룬 사랑이 못내 아쉬워서, 해피엔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합니다.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내’ 자신이 주인공인 날입니다. 비록 ‘내’ 자신이 선남선녀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사랑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나날입니다.

비록 ‘불치병’에 걸려 죽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내’가 만들어가는 사랑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죽게 됩니다. 바로 ‘나’ 자신을 대신해서 말입니다. 죽어서도 당신의 사랑이 영원하리라는 것을 보여주듯 ‘피와 물’을 다 쏟아내면서까지 말입니다.

예수 성심, 가시관에 눌리고 창에 찔린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멜로 영화가 슬픈 사랑 이야기로 끝나지만, 예수님과 ‘내’가 만들어가는 사랑 이야기에는 슬픔이란 없습니다. 끝이란 없습니다. 오로지 영원한 ‘사랑’만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랑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6월 한 달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내’가 만들어가는 사랑 이야기에 흠뻑 취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



## 노 아

현대일 루도비코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신부

성서에 나타난 죄, 잘못, 벌을 살펴보면서 교정의 성서적 의미를 찾다가 그러면 올바르게 산다는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대답을 노아에서 발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분명히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류의 타락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면서 후회하시고, 사람과 짐승과 하늘의 새까지 끌어버리겠다고 다짐할 때, “노아만은 하느님 눈에 들었다”(창세 6,8)고, 성서는 표현합니다. “당대에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었다”(창세 6,9)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서는 노아가 어떻게 하느님 눈에 들었고, 어떤 업적을 행하였기에 세기를 멸망시키는 물난리 속에서 뽑혀 구원되는 사람이 되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 방주를 만들 능력이 되어서 뽑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자선활동을 많이 했기에, 그렇게 자비심이 많으니 다른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잘 지내겠다 싶어서 뽑혔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당에 많이 나가서 헌금을 많이 했는지, 혹은 묵주기도와 매일 미사에 열심한 신자여서, 그래서 그 결과로 하느님 계시를 들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카인의 자손이고, 또 술도 꽤나 하신 것을 보면(창세 10, 21), 우리와 완전 판 세상 가문의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업적이나 능력, 족보로 인해 뽑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노아를 의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 다. 노아가 우리와 남다르지 않다는 점이, 그럼에도 노아가 하느님께 뽑혔다는 점이, 우리 역시 뽑힐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말의 뜻이 ‘위로’, ‘위안’입니다.

특 터놓고 말해봅시다. 노아가 하느님께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아 좋았던 것이 무엇이요? 당신은 어떻게 물을 수 있겠네요. 하긴 노아가 재물을 얻었나요, 당대의 명성을 얻었나요. 사람들이 놀고 마실 때, 그 큰 방주 짓느라 생고생 했겠고, 그것도 엄청나게 놀림을 받았겠네요. 이웃들과 갈라지고, 또 친구 친척 인류의 멸망을 보고, 더욱이 자신은 그 캄캄한 방주에서 지구 종말의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언제 방주 밖으로 나가야 하는지 모르는 채 일 년 이상을 물 위에서 동동 떠다녔죠. 게다가 인류 멸망 후 자신은 지주나 재벌이 아닌 그저 포도밭을 가꾸는 농부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노아가 주변의 놀림 속에서도 길이 130미터가 넘는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또 그 캄캄한 방주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방주의 문을 열고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느



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 뜻에 따랐습니다. 아담과 카인의 경우, 하느님의 말씀에 변명과 핑계, 거짓의 대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주를 만들후,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느님의 명령에 노아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저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6,22; 7,5)의 표현뿐입니다. 언제쯤 방주에서 나와야 할까 애타기도 했을 것입니다. 까마귀를 날려 보내기도 하고, 비둘기를 네 차례 날려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방주 뚜껑을 뚫어보고 땅바닥이 다 말라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방주 속에 있다가, 하느님이 “방주에서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자 그제서야 나옵니다.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귀 기울이며, 그대로 실천합니다. 순종은, 가만히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고, 짐승을 모아 방주로 데려 들어갑니다. 자신의 몫을 다 합니다. 어두운 방주 속, 끝을 모르는 그 종말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그 믿음이 아니었을까, 계속 그 하느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하느님 시선에 대한 의식이 그를 의인이 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방주를 지옥 속 감옥이 아닌,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방주 속은 어둡고, 좁고, 덥고, 온갖 동물의 냄새와 소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몰랐습니다. 그게 감옥일 수 있었을 텐데, 그곳에 하느님과 함께 걷고 있었기에 그 방주 속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2코린 5,17).

노아를 향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창세 6,9)는 표현을, 다른 번역본 성서에서는 함께 걸어갔다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목적지가 같아야겠지요.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걷습니다. 하느님 가는 길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원하는 곳을 바라보면서 왜 하느님은 내 맘도 모르느냐, 나를 안따라오냐 투정부리지 않습니다. 또한 함께 걷는다는 것은, 각자 자신의 걸음을 걸으며 상대방 호흡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나 다리 아프니, 내 앞길 보이지 않으니, 나 엎어줘, 나 이끌어줘 하면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내 몫을 걷습니다. 그분의 호흡에 맞춰 내 길을 내 발로 걷습니다. 그것이 함께 걷는 모습일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느님과 함께 걸어갔기에, 함께 살아갔기에 모든 것이 휩쓸려 내려가는 세상종말에서도, 그 캄캄한 방주 속 절망에서도 희망을 품고 이겨내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내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절망 속에서, 하느님과 함께 걸으며 이 어두움을 구원의 방주로 발견하고 있는지, 혹은 세상 잣대로 불안하게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울고만 있는지 나 자신을 성찰해봅니다. ■





## 기쁨과희망은행 창립 10주년

출소자의 '기쁨' 수용자의 '희망'

김일호 미카엘 / 기쁨과희망은행 본부장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살해 피해 사건의 충격으로 일자리조차 찾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기쁨과희망은행'이 2008년 6월 25일 창립되었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은 출소자나 살해 피해자 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자금을 담보 없이 대출해 주고 창업을 지원하는 은행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 6월 25일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전 위원장 이영우 신부님과故김기섭 후원회장님의 도움으로 창립하여 올해 10년이 되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도 취업이 어렵고 먹고살기 위해 재범을 저지르는 전과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재범을 줄이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출소자에게 자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출소자들에게 창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창업 교육, 대출지원, 사후관리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창업자금 지원으로 기회를 얻은 대출자들은 다른 출소자의 재범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종교기관인 기쁨과희망은행은 재범률을 감소시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10주년인 2018년 5월 현재 1기~18기 까지 18번의 창업교육을 진행하여 수료자 365명과 204명(창업지원 189명, 피해자 지원 4명, 자활 지원 11명)의 대출자에게 총 3,491백만원의 창업대출금을 지원하였고 2018년 5월부터 19번째 창업교육을 시작하여 현재 23명의 출소자가 교육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출자들이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 세금체납과 복역으로 인한 사회와 단절된 시간이 길고 가족 및 지인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출소자란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일반인 창업자들과 창업현장에서 처절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1호 완납자를 시작으로 2018년 6월 현재 15명의 완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완납한 대출자들의 공통점은 성실함과 인내심이었습니다. 무리하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급한 마음을 버리고 열정과 성실함, 책임감 그리고 인내심으로 자기 자신과 시간과의 경쟁에서 이겨내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성실함과 인내심을 잃지 않도록 응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큰 의미에서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영우 신부님, 김성은 신부님, 김지영 신부님, 김석원 신부님이 은행장으로 함께 해주셨고 여러 부위원장 신부님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주신 신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후원회원, 운영위원, 창업대출자, 함께했던 직원, 함께하고 있는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출소자들에게 기쁨을 수용자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





## 이루어 주시는 분

장희진 루시아 / 남부구치소 여사 봉사자

요즘 봉사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주님, 누가 죄인일까요?’라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도 가장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수용자 분들과 함께 바치는 묵주의 기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순수하게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하며 묵주기도를 한알 한알 정성으로 바치는 수용자들을 보며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옆의 강도처럼 진정으로 뉘우치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느 날 딸이 제게 ‘엄마는 왜 그곳에서 봉사를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수용자들을 붙잡히 여기는 마음으로 봉사한다면 그것은 봉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또, 뉴스를 보다가 범죄들이 더 잔인해지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것 같다며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 우리가 모두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아이들만 생각하는, 내 주변의 가까운 이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아이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던 나의 모습에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살아왔는가?’, ‘나의 작은 도움이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하는 생각들, 그리고 미래에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에 살게 해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좋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내 가족, 내 아이들만 생각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그들이 범죄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봉사의 시작이었는데 지금은 봉사를 하면서 내가 위로받고 봉사가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곳으로 왔었던가? 첫 마음은 무엇이었던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당에서 전례봉사를 하면서 봉사에 대한 기도를 했었는데 그 내용은 정말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봉사할 수 있기를 기도했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후에 저와 함께 공부하던 자매님의 권유로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 교정시설 봉사교육을 받았고 남부구치소에서 봉사중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제게 주신 재능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잘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제게 좋은 몫을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





## 닫힌 사회, 열린 담장

이보라 보나 / 이미지케이션 전문 강사

작년 4월부터 사회교정사목위원회와 연이 닿아 구치소 집중인성교육 강의를 하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사회에 무언가를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가를 생각하며 그러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나 또한 노력해야 한다고 항상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구치소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난 후, 내 느낌은 정반대이다. 왜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했었나, 왜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었나, 나 역시 부족한 존재인데 말이다. 이번 집중인성교육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담장 밖에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사실 담장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내가 정해놓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선을 그어 놓으며 나름대로 생활방식으로 잘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제까지나 내 안의 틀에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이다. 나 또한 그렇게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춰 생활하는 데 더 익숙하다.

그러나 그들은 달랐다. 물론 사회에서 쉽게 용서되지 않을 잘못을 하고 들어와 있는 것이고 이는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그들은 울타리 안에서 변화하고, 맞춰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인성교육을 받으러 온 그들은 더욱더 확실하다. 그들은 서로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 정말로 노력하고 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조심스러운 부분을 느낄 수 있다.

나는 매번 인성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DISC'라고 하는 행동성향진단을 한다. 이 진단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나는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를 인식하는 과정, 즉, 자기 인식 과정이다. 내가 강의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난 후, 상대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진단지를 자주 사용한다. 사람의 성격을 진단하는 성격진단지가 아니라 처해있는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행동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진단지이다. 따라서 진단함에서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정이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설정은 당연히 구치소 안에서의 모습을 떠올리며 진단케 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가 느끼는 그 사람의 행동성향과 진단지의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단을 두 가지로 실시하였다. 하나는 구치소 생활관 안에서, 다른 하나는 사회에서 일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진단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여기서 답이 나왔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때로는 조심스럽게 숨겨가며 담장 안에서 자신을 조율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피해를 서로 주지 않기 위해, 사회(?)라고 하는 담장 밖에서의 생활보다 훨씬 더 타인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었다. 그들은 본인이 노력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냥 그 안에선 그러면 안 되니깐 본 모습을 숨기는 거지요!'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다. 그러나 그게 포인트이다. 하면 안 되는 것을 안다는 것!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타인과의 관계성을 좋게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담장 밖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그들이 노력하는 것을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노력한다면 하루가 편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담장 밖 우리가 서로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는 것이다. 없애는 게 어렵다면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 타인을 탓하기보다 나를 돌아보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타인을 바라보면 훨씬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 역시 똑같은 하느님의 자식임을 우리 모두 인식하자.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다. 조금만 더 강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때로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그들 중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들어줄 때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 것이다. ■





## 성모 마리아님께 올리는 편지

천주의 성모 우리의 어머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동정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봉헌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을 공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처럼 굳은 신앙을 가지고

겸손과 순명의 자세로 살아갈 것을 오늘 결심해 봅니다.

오롯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고난과 신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께 봉헌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 마리아님

수감되어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는 저희는 잘잘못을 깊이 회개하오니

더욱 소중히 여기시어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소서.

저희가 이제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느님의 평화를

누리도록 전가하여 주시고

보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18. 5. 3.

최○○ 아드리아노 3세

성모성월에 성모님께 드리는 간절한 마음을 편지로 봉헌한 형제님에게 성모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 해바라기 연가

내 생애가 한번 뿐이듯  
나의 사랑도  
하나입니다

나의 임금이어  
폭포처럼 쏟아져 오는 그리움에  
목메어  
죽을 것만 같은 열병을 앓습니다.

당신아닌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은  
사랑

이 가슴 안에서  
울울이 뿜은 고운 실로  
당신의 비단 옷을 짜겠습니다.

빛나는 얼굴 눈부시어  
고개 숙이면  
속으로 타서 익는 까만 꽃씨  
당신께 바치는 나의 언어들

이미 하나인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될 날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의 임금이어  
드릴 것은 상처 뿐이어도  
어둠에 숨지지 않고  
섬겨 살기 원이옵니다.

- 이해인 클라우디아 수녀 -

마  
담  
달

(5)

양상우  
도로테아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후원알림마당

## 안내 말씀 드립니다

- 후원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 반송우편물로 낭비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 CMS 및 자동이체 후원을 권장합니다.

본 위원회는 금융결제원과 합의하여 전화신청만 하시면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 결제되는 후원금 자동 납부 방식인 CMS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로 용지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빛의사람들’ 소식지를 이메일 발송해드립니다.

소식지를 우편으로 받아보기 어려우시거나 우편비용의 절감을 원하시는 후원회원님께 이메일 발송을 해드리오

니,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사업부: 02)921-5094

##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 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결 취 선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자동이체 신청가능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 2018년 7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저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 일시 : 7월 2일 월요일 오전 10:30

\*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7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4/14 ~ 5/14)

4월~5월에는 정규수 베드로, 김대수 니콜라오, 정소이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행사 알림

- 6월 4일(월) 후원회원 월례미사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6월 8일(금)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사회 / 교정사목센터
- 6월 9일(토) 기쁨과희망은행 19기 창업대출 심사 / 교정사목센터
- 6월 9일(토) 해밀(피해자) 가족 모임 / 교정사목센터
- 6월 16일(토)~17일(일) 후원회원 모집미사 / 삼각지 성당
- 6월 24일(일) 기쁨과희망은행 10주년 기념미사 / 교정사목센터 성당
- 6월 25일(월) 기쁨과희망은행 10주년 기념일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 SC 제일은행 계좌 해지 안내

SC제일은행(109-10-276339) 후원계좌를 해지합니다. SC제일은행(자동이체)으로 후원하시는 후원회원분들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사업부: 02-921-5094)

## 후원신청서

후원자 성명	세례명	영명축일
주소		
연락처		
소식지발송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금융기관명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평생계좌는 [모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예금주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원하시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